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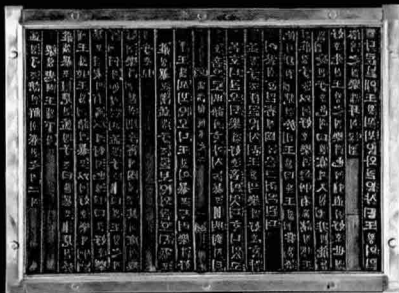
서주갑인재(노어집주대전 권7:무신자)

조선시대 대표적 금속활자 10종 복원됐다

청주시의 의뢰로 2007년 4월부터 금속활자 복원에 나선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과 청주대 한국문화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세종때 만들어져 임진왜란 이후까지 사용된 갑인자 계열 활자 등 10종의 금속활자를 복원해 최근 고인쇄박물관에서 공개했다. 이번에 복원된 금속활자는 초주갑인자 등 갑인자 계열 활자 6종과 무신자 한글활자, 갑인자 한글활자, 경서자 한글활자, 을해자 한글소자 등 모두 10종이다.



을해자한글소자(능엄경 권7)



경서자한글활자(맹자언해 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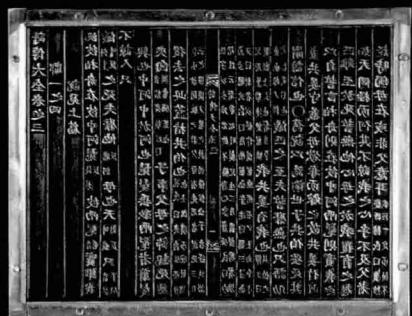
육주갑인자(사기영선 권3:경리자)



재주갑인자(서전 권10:경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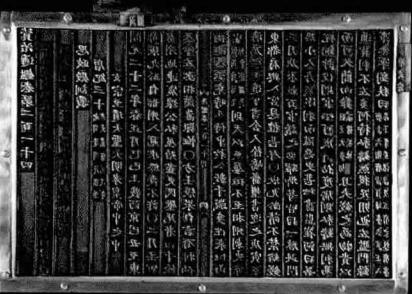
갑인자한글활자(석보상절 권24)



삼주갑인자(시전대전 권3:무오자)



오주갑인자(아송 권6:임진자)



조주갑인자(자치통감 권214)



무신자한글활자(주역연해 권1)

조선시대 만들어진 활자 중 가장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갑인자로 인쇄된 책으로는 ‘대학연의’ 등이 있다.

청주시의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은 직지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계승·발전시킨 조선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의 중장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007년은 그 첫 해로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갑인자 계열 6종과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인 <월인천강지곡자>, 한글 금속활자 3종 등 총 10종을 복원해 낸 것.

고인쇄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2007년 5월 사업이 시작된 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금속활자 주조기술에 대한 학술적 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청주대 한국문화연구소,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실 등을 공동 컨소시엄으로 선정하여 주조기술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지난 9월 개최된 제2회 <직지상>시상을 기념해서는 한국 금속활자 인쇄기술에 대한 학술적 논리화를 위해 “조선시대 인쇄정책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로 분야별 권위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금속활자 실물복원과 함께 조선시대 인쇄정책에 대한 학술적 논리화는 향후 복원사업 종료시까지 지속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서구 중심적 대응논리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의 발상지인 청주가 인쇄 문화의 중심지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2010년까지 복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은 2010년까지 총사업비 30억이 투입되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금속활자 30여종 복원과 인쇄술과 관련한 학술연구용역 4회, 국내외 학술세미나 4회, 특별전 4회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복원한 금속활자의 종류와 인본은 조주갑인자(자치통감 권214), 재주갑인자(서전 권10:경진자), 삼주갑인자(시전대전 권3:무오자), 사주갑인자(논어집주대전 권7:무신자), 오주갑인자(아송 권6:임진자), 육주갑인자(사기영선 권3:정리자), 무신자한글활자(주역연해 권1), 갑인자한글활자(석보상절 권24), 경서자한글활자(맹자언해 권2), 을해자한글소자(능엄경 권7) 등이다. <G>